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성심 성월 · 주님 승천 대축일
제34권 27호(가해) 2014·6·1

[묵상]

어떤 이는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살고,
어떤 이는 출세를 위해서 살고,
어떤 이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루려고 살아 갑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은 어떤 꿈을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표정을 짓고 울고 웃고 하는가 하면,
출세를 위해서는 밤을 세워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남보다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가가 되고자 한다면
훌륭한 선생님께 찾아가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희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본다고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너희는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자기들의 장소로 돌아가서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말씀대로 생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꿈은 그 꿈속에서만 살면 늘 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꿈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꿈이 현실로 변화됩니다.

꿈속에서 사시겠습니까?
그 꿈을 현실로 바꾸시겠습니까?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김옥 안토니오, 최보나 보나,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낮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이명자 로사,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남건우, 이원길 요한 & 성순분 수산나, 유원준, 김명순 (생) 첫영성체어린이들(장애바, 장알베르파, 이아론, 이아브라함, 박베네딕도, 김엘리아, 김플로라, 최안젤라) 석순영 아네스, 조운채 요셉, 장혜수 라파엘라, 오 마우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1,1-11

화답송 ○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7-23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72(2,3절)	172(1,2절)	172
봉헌	409	267	310
성체	특송	299	304
파견	172(4,5절)	172(3,4절)	165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9 (9번의 계속) 기뻐하십시오.
부정한 행동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불의 우상 숭배는 파괴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걱정의 불꽃은 사위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지혜가 믿는 이들을 인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세세 대대로 전해집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10 고향 바빌론으로 되돌아가면서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예언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모두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경망스런 헤로데로서는 전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릅니다. 알렐루야!
11 찬빛이 이집트에 비추자 오류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구원자시여, 당신의 힘을 견딜 수 없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들을 쳐부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노래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인간들의 격상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악마들을 쳐부수시는 분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사기와 거짓을 짓밟고
우상과 오류의 가면을 벗겨 내신 분.
기뻐하십시오. 파라오의 군대를 삼키신 바다시여.
기뻐하십시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뿜어내시는 바위샘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어둠에 있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불기둥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구름보다 넓은 세상의 안식처시여.
기뻐하십시오. 만나 다음으로 내려 주신 음식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거룩한 찬미의 사도시여.
기뻐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12 시대온이 숙절없는 이 세상을 떠날 무렵,
당신은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셨습니다.
시대온은 하느님을 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감동을 받아 노래합니다. 알렐루야.
13 창조주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며 창조를 새롭게 하십니다.
씨앗을 품지 않은 태중으로 흘러들어
그렇게 동정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모두가 그 기적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당신께 노래합니다. <◆계속>

마음을 드높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를 일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 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으셨을지... 받아들이 수박에 없는 이별은 언제나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떠나야만 하는 이와 남아야 하는 이. 단1초라도 더 함께하고픈 애절한 순간을 그들은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이별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였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천 년 전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요한 16.28)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이 세상 너머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경험세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안목을 열어 주고, 초월세계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교두보라 하겠습니다. 이 만남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내가, 잃어버린 '나'의 본래 모습과 내 안에 숨은 하느님의 모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더불어 용서와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며, 순간순간의 귀한 만남에 감사할 줄 아는 좀 더 큰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분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내 인생의 질을 높여 주는 새 삶을 향한 이 여정은, 지금 나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은 올리브 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갑니다. 우리 또한 초월세계와의 만남 뒤에는 다시 현

실의 세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의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월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하루살이는 그 내면의 질과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철학자 김태길 교수는 '흐르지 않는 세월'에서 인간의 문제를 고뇌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나?",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나 자신'입니다. 세 번째 답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곧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요, 이는바로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 안에 숨은 큰 뜻을 찾아 생명을 불어넣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지혜와 의지를 뛰어넘는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 승천하신 그분의 현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1,11)

◆차원석 신부 / 서울대교구 노원성당 주임

내병이 나를 위로하다.

어쩌다보니 지병을 하나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여기 저기 아프단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병이 생기곤 어지간한 것들은 그까짓 거, 하게 됩니다. 사니 못사니 하는 수만 가지 고통들 한방에 정리해주려고 늘그막에 지병이 찾아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병과 함께 사는 일, 영 나쁜 것만도 아닌 듯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정광미 프란체스카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민상 사도요한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민상 사도요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마감했습니다.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장학금 지급 : 8월10일 예정, 한 학생당 \$2,000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

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습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 ◆ 6월 성시간 : 5일(목) 저녁미사후
◆ 첫토요일 진심미사 : 7일(토) 오전 8시30분

◆ 주일학교 어린이 첫명성체 예식과 축하식

- 일시 : 오늘 주일(1일) 주님 승천 대축일 낮 11시 미사중에 유아세례를 받았던 8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의 성체를 처음으로 모십니다.
- 첫영성체 대상자 : 장 예바, 장 알베르따, 이 아론, 이 아브라함, 박 베네딕도, 김 엘리야, 김 플로라, 최 안젤라 (이상 8명)
- 예식이 끝난 후 강당에서 축하식이 있습니다.

◆ LA 대교구 정송구 알프레아 신부 첫 감사미사

- 첫 감사미사 : 6월1일(주일) 오후 5시 성 그레고리 한인
성당(900 S. Bronson Av. LA, CA 90019)
- 한인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주시기바랍니다.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124위 한국 수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시에 맞추어 북미주 사제협의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성지순례(Pilgrimage with Pope Francis in Korea)’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권(5박6일), 영어권(9박10일) 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출발(한국어권 8월11일, 영어권 8월10일)은 함께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자유롭게 결정.
- 미주지역 참가단을 위한 지정성 할당은 선착순
- 한국성지순례 : 8월13일~14일
- 시복식 : 8월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참가신청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미사전례 독서자 뽑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학생으로 현재 6~12학년
- 모집마감 : 6월8일(주일)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44-8895

◆ 제7차 FIAT 리더십 교육의정

- 일시 : 6월19일(목) 오후 4시~22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애나하임 성로마스 한인천주교회
- 참가대상 :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봉사자 등
- 문의 : FIAT재단 ☎(714)772-3995, ex)106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1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 주일학교(12학년 불고기덮밥)
- 6월8일(주일) : 토런스 남1,2반(무밥 \$3)
- *주일학교(1,2학년 칠리도그)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김교복 김성택 김성현 김 은 김정선 김주량 김 준 나경흠 민성원 서성용 오상준 이경태 이병우 이복임 이석진 이현주 이형삼 장영진 지재환 최재은	성전현금	강인모 김교복 김주량 김 준 나경흠 민성원 서성용 이경태 이병우 이복임 이석진 이현주 이형삼 장영진 지재환 최재은	
합계 : \$2,460		합계 : \$1,350		
주일미사 현금 : \$2,367		성물부 성전현금 : \$450		

◆ 2014-201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5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7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선착순 50명)
- 참가비 : \$50(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교사 ☎(310)613-9116

◆ 2014-2015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SAT반
- 등록비 : 첫째 \$200, 둘째 \$190, 셋째 : \$180, 넷째 : 무료 (6월15일전까지 등록하면 20% 할인 혜택), SAT반 \$200
- 접수처 : 한국학교 교사실(2층)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행사 안내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KYCR Reunion 찬양의 밤 : 6월14일(토)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라파엘 성당
- 초대신부님 : 정현철 알렉스, 이상훈 요한, 정브라이언
- 문의 : 김모니카 ☎(310)999-1142

◆ 제2회 학생 성화미술대회 (남가주한인가톨릭미술가회)

- 주제 : 주님은 나의 목자
- 대상 : 유치부, 초, 중, 고등부 학생
- 마감 : 6월1일~30일 * 보낼곳 : 가톨릭신문사
- 문의 : 가톨릭미술가회 ☎(818)667-2877

◆ 제21기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6월1일, 2일 양일중 택일
- 수강료 : \$200(4시간 교육, 30회 실습)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문의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올리아 213-675-0498 6/14(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패트릭 701-6343 6/14(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3(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임순 데레사 780-3258 6/14(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6/15(주일) 플레이스리타캐년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6/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6/8(주일) 오후 2시 성당친교장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주이자 데레사 634-6923 6/13(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2 6/15(주일) 오후 5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미열 클라라 404-1607 6/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유명련 마리아 365-0660 6/14(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2	금유미 크리스챤시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챤시아 482-9108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4(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강숙경 도미니카 617-3568 6/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하느님, 돈하고 남편하고 바꿔주세요!

결혼 20년 만에 분가를 했습니다. 집이 망해 식구가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시부모님은 조그마한 집으로 모시고, 저희는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하방도 좋았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쌀독에 쌀이 비어가고 지갑에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늘 분가를 꿈꾸면서도, 분가라는 것이 몸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 먼저이어야 함을 모르는 철부지였던 것입니다. 살길이 막막한 저는 남편과 함께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귀한 몸(?)으로 지낸 남편은 그 일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가기 싫다는 남편을 끌고 일을 다녀오면, 남편은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드러누워 끄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결혼생활에서의 불만과 합쳐져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폭발 직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느님 앞에 앉으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올라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세끼 밥을 해 바치고 외출한 번 변변히 못하고 2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상은 커녕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가요?’

그리고는 제 분에 못 이겨 목놓아 울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퍼질고 앉아 온 날이 아마 평생을 합쳐 온 날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자존심은 만신창이가 되고, 남편에 대한 미움은 거의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울분에 차여 하느님께 고함을 치며 이런 기도까지 올렸습니다. ‘하느님! 돈하고 제 남편하고 바꿔 주세요. 저는 더이상 남편 필요 없으니 돈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사람이 자기 욕심의 극단으로 가면 어떤 기도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니?’ 머리끝이 쭈뼛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 남편이 보였습니다. 저만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악을 쓰고 있을 때, 제 남편이 힘들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제 마음이었지요. 살 단할 때는 남편의 모든 모습이 봐줄만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남편의 무능력이 보였습니다. 결국 제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원인은 남편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악이었습니다. 소리치며 악악거리는 제 옆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참고 있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 뒤에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저 자신이 부끄러워 숨고 싶었습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서울주보-

◆윤미숙 베로니카 / 그림에니어그램 연구소소장

잠은 ‘쉽’인 동시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일 년 넘게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술도 마셔보았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온종일 피곤하고, 짜증도 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고민됩니다.

☞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의 1위도 ‘잠이 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잠이 올까 싶어서 운동도 하고, 평소에는 지루해서 하기 싫은 묵주기도나 성경 읽기도, 잠들려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위한 그 많은 노력이 어찌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야지, 자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잠을 자는 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무일도’에서 자기 전에 드리는 끝기도의 마침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죽음에 빗대어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죽는 것과 비슷하게 잠자는 동안의 내 의식과 행동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 걱정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은 ‘쉽’인 동시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잠조차도 내 의지로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잠을 포함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려고 해 보셨으면 합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앵무새 교우 벗어날 수 있나요?

☞ 앵무새 교우는 미사 때 앵무새처럼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소리는 잘 내지만,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기계적이며 습관적으로 읊기만하는 교우를 말합니다. 전례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교우는 전례의 주체로서 모든 전례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곧 전례 의식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업적의 의미를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삶과 전례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